

God's Providential Grace over Evil & Death
악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 (창세기 50:15-26)

Patterns of Evil & Death

We come to the 18th & final sermon in our Genesis series. We began back when Joseph was 17 years old — the object of preferential affection of his father that brought jealousy & hatred from his brothers. Now, 14 chapters & ~ 40 years later we open at the scene after Israel's burial, his sons return to Egypt....& the 10 brothers finally confessing their guilt

That evil from early in the story has been an undercurrent in the narrative of Israel & his sons. But its origin goes right back to the account of Genesis 3...where evil in the form of the serpent entered the garden & infected humanity when Adam & Eve fell.

God's judgement was death....but His grace came, 'the seed of the woman would bruise the head of the serpent.' Then in Genesis 12, God called Abram & gave him the great covenant promises of land & a great nation as well as bringing blessing to the whole world through him.

Alongside the evil & yet overruling it has been God's providential grace as His covenant to Abraham unfolded. We've particularly seen that His grace for the family of Israel....has not only been their only hope.....but the only hope for the world

A key verse in this passage....& in a remarkable way for the book of Genesis as a whole is when Joseph in regard to the actions of his guilty brothers says, (Gen. 50:20), "You meant it for evil, but God meant it for good"

악과 죽음의 패턴.

오늘 설교는 창세기 설교 시리즈의 18 번째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는 17 살이었던 요셉의 인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가 그의 아버지의 차별적인 사랑으로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았는지를 보았고, 14 장 그리고 40 년이 지난 후, 우리는 오늘 구절을 통해 야곱이 장사 되는 장면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의 초기부터 그들의 악의 문제는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 은밀하게 흐르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의 원래의 출발점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온 인류를 죄에 감염시키는 창세기 3 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 3:15)**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사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세우시기를, 그에게 큰 땅, 큰 민족,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인간의 죄와 악 가운데서도, 이런 악을 제압함이 하나님 섭리적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런 은혜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가족을 통해 보게 되고, 이는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구절의 핵심구절은, 요셉의 형제들의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요셉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Even though his brothers hated him at the time & were trying to eliminate him, it was God in His providential grace who overruled their evil in sending Joseph to Egypt (Gen. 45:5, 7, 8). Joseph's trust in God's sovereign goodness carried him through those terrible trials with a joyful spirit, free from bitterness & complaining.

In that He has consistently points us to Jesus Christ.....the seed not only of Abraham but of the woman who has crushed the head of the evil one. That means there is sovereign providential grace to overcome evil for all who are united by faith to Jesus Christ.

Galatians 3:16 'The promises were spoken to Abraham and to his seed. The Scripture does not say "and to seeds," meaning many people, but "and to your seed," meaning one person, who is Christ.'

Does your life reflect the grace & peace of knowing God's sovereign goodness in Christ....or is the strife of the world & the sin of others crushing & embittering?

The Long-term Grip of Guilt (15-18)

V15, 'When Joseph's brothers saw that their father was dead, they said, "It may be that Joseph will hate us and pay us back for all the evil that we did to him." So they sent a message to Joseph, saying, "Your father gave this command before he died: 'Say to Joseph, "Please forgive the transgression of your brothers and their sin, because they did evil to you."' And now, please forgive the transgressions of the servants of the God of your father.'"

비록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없애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적 은혜 가운데 이런 악을 억제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창 45:5,7 절, 8 절). 이런 하나님 주권적 은혜에 대한 믿음이, 그가 고통과 불평에서 벗어나, 기쁨 가운데 그 끔찍한 시련을 이겨내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3 장 말씀과 같이 여자의 자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인 그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연합된 모든 사람에게는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 3:16 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함을 아는 은혜와 평안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툼과 죄로 인한 원통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그들을 붙잡아온 죄책감 (15~18 절)

15~17 절 중반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Joseph's brothers came to Egypt to settle in the land of Goshen with their father...but prior to that, in Genesis 45:7, when Joseph revealed himself to his brothers...he said to them "do not be distressed or angry with yourselves because you sold me here, for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life..."; then in v8 'So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Ten of the brothers, excluding Benjamin had been part of the plot to eradicate Joseph. For many years, after they'd lied to Israel...they had all presumed Joseph to be dead.

For 22 or so remarkable years they'd been the beneficiaries of God's saving grace through Joseph — the PM of Egypt. Yet all that time, they feared that it was their father Jacob was the one restraining Joseph from repaying them according to what they deserved. That means — despite Joseph's character — they hadn't understood the grace he'd spoken or shown them...These brothers had needlessly carried the guilt that Joseph had forgiven them of 17 years earlier. So it seems that the brothers fabricate a story.

There's no record that Israel ever issued such a command...likely because he knew they would be safe with Joseph. To the brothers' ongoing guilt...they added a lie...out of fear of Joseph's retribution. Again, the line from 16th C Scottish poet, Walter Scott is apt... "Oh, what a tangled web we weave when first we practise to deceive!"

We Christians...like Joseph's brothers, can live — sometimes for years — even decades — carrying the guilt of the past though our Lord has forgiven us long ago. The only answer to the tangled mess of our sin is to come to the one in his grace & saving power to whom Joseph pointed...the infinitely greater Lord & Saviour Jesus Christ. +to be all the more ready to point non-believers as the Spirit convicts them of guilt to Jesus Christ.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와 함께 고센 땅에 살기 위해 애굽에 왔었습니다...그러나 이전에 창세기 45:5 에서 보듯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냈을 때, 그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8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약 22 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수장인 요셉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 은혜의 수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시간 동안 생각하기를,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음은, 야곱이 살아있어서 복수를 행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성품과,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17 년 전에 이미 용서한 죄를 쓸데없이 짊어진 상태로 고민 가운데 살아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으로 말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을 해하지 말라 명령했다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야곱의 이런 명령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야곱이 이미 그들을 용서하였고,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복수가 두려운 나머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16 세기 스코틀랜드의 시인 월터 스콧의 시가 이 상황에 잘 어울립니다... "첫 거짓말의 시작으로 우리는 얼마나 뛰어난 거미줄을 짜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혹은 수십 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난날에 죄책감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뛰어난 혼란에 대한 유일한 답은, 요셉이 가리키는 우리 구주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Joseph's response could have been one of anger as their lie reminded him again of the evil that had conspired against him...but instead... v17c, 'Joseph wept when they spoke to him.'

Despite all they had done & now continued to do...he loved & forgave them...as shown in the way he'd treated them in the famine...& now in his tears. We see that in his emotion — grace spoke a better word — Behind the guilt that they carried, & the lies from their fear...Joseph saw the admission of what they'd really done...

Here, finally, was confession where none apart from Judah in Genesis 44 had yet been made. Joseph didn't need to say anything to them...they could see by his tears the degree to which their acknowledgement of guilt — albeit from flawed men — had affected him; not in anger; but in humble compassion...so with a mix of hope & a desperate plea for mercy... V18, 'His brothers also came and fell down before him and said, "Behold, we are your servants."'

The brothers by their approach but even more so & particularly Joseph by his response show utter humility...

The Power of Providence over Evil & Guilt (19-21)

V19, '(But) Joseph said to them, "Do not fear, for am I in the place of God?"'

Despite his greatness...& almost absolute power...Joseph refused to use such power to his advantage, He could have easily assumed the place of sovereignty in their lives...God had given him extraordinary power. Pride could have captured his heart. But the Lord had restrained such arrogance through years of trial to raise up a man of impeccable character

형제들의 이런 거짓말은, 그들이 지난날에 행한 악에 대해 다시 떠오르게 하기에, 요셉은 그들에게 분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 대신 17 절 후반에서 이처럼 요셉은 반응합니다...17 절 후반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지난날에 그들이 행한 악과 거짓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근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구하고, 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그의 감정을 통해 이런 모습이 드러났고 그들의 죄책감과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이런 허물을 덮었습니다.

44 장에서 나온 유다를 제외하고 여기서 나머지 형제들은 처음으로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이미 그들은 요셉의 눈물로 그들의 죄의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요셉은 그들에게 분노하기보다는 긍휼함으로 대했으며,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 형제들은 요셉의 자비에 호소할 수 있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18 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 이런 형제들을 요셉이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볼 때,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완전한 겸손의 모습을 봅니다.

악과 죄에 대한 하나님 섭리의 능력 (19~21 절)

19 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이런 권력을 남용하여, 복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에, 자기 자신이 주권자의 자리를 차지하며, 그의 마음은 자만심으로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요셉의 여러 환란을 통해 그의 성품을 다듬으심으로, 요셉이 거만하지 않도록 억제하셨습니다.

...because he recognised that it was God & not he himself who ultimately ruled...the logical & natural humble reassurance came for them not to fear. The opposite makes for tyrannical rule to this day — whether in the home or in a political sphere — Psalm 14:1 David says, ‘The fool says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They are corrupt, they do abominable deeds; there is none who does good.’

Thank the Lord for His good providence that set Holy Joseph in power over the sinful sons of Israel...to preserve the immature nation at this stage barely 3 generations old. If Joseph had have been like his violent & vengeful older brothers...that may well have been the end of the nation...what then would have become of OT salvation history unfolding in Israel.....fulfilled 1800 years later in Jesus — the greater descendant of Joseph’s brother in the line of kings from the tribe of Judah? The Lord had provided one like himself in providential grace, to preserve them — summed up by one of the greatest statements of sovereign grace + how it fits with human evil — in the whole of Scripture.

V20, “As for you, you meant evil against me, but God meant it for good,”

It’s a plain statement of the truth of how it was for Joseph’s brothers. There was no denying it — they had evil intent...but God in His providential grace or simply ‘providence’ overruled their human intent by His sovereign power, driven by His goodness. The good v20b, Joseph says was, “to bring it about that many people should be kept alive, as they are today.” This word is at the heart of this passage & is the reason that there has been real hope to redeem the corruption in Israel & his family.

The hateful thoughts....the violence....the deceit....the lust....the hypocrisy, In God’s sovereignty have been the means to achieve His glorious end. In Christ, God’s promise is every bit as true for us as it was for Joseph & his family....

요셉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만이 통치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겸손함을 형제들이 두려워하지 않게끔 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모습은 폭압적인 통치로 나타납니다. 시편 14:1 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악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요셉의 손으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감사합니다...만약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같이 폭력적이고 복수심이 가득 찬 자였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은 그의 손에 죽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뿐만 아니라 1800년 이후 유대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나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주님께서는 그의 섭리적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기 위해 요셉과 같은 자를 세우신 것이며, 결국 인간의 사악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20 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는 이 상황에 대한 간결한 요약문과 같습니다. 그들은 사악함을 가지고 나쁜 짓을 행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적 은혜 가운데 그들의 이런 사악함 또한 다스리셔서 이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선이란 20 절 후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이 오늘 구절의 핵심이며,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의 죄와 부패함 가운데서도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미움과 폭력, 속임, 욕정, 위선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끝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참되며 진실한 약속입니다.

Rom 8:28, Do you believe that? If so, then there is no bitterness to be harboured...no resentment to grow...no despair to be had. We can respond with the grace that overflows from being united by faith to Christ.

When someone tries to confess sin...you might hear the other say, “forget about it...it doesn’t matter” In an effort to show kindness, you might’ve said the same thing. A more Biblical response is to acknowledge someone’s confession by simply saying, “I forgive you...& then to assure them, like Joseph that you don’t hold it against them Perhaps by saying something like, ‘don’t let it worry you any more’.

It’s an even more gracious response that Joseph continues giving...v21, “So do not fear;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little ones.” Thus he comforted them and spoke kindly to them.’

We too have words of comfort & kindness to speak...tempting though it is to put someone in their place when they finally confess their sin...Take the opportunity to share with them the powerful truth of God’s sovereign control of all things & ultimately the forgiveness found in Christ alone.

It can also be tempting when we forgive another to present ourselves as someone of superior goodness...when we must in humility point them to the one who is the source of any power we have to forgive — Jesus Christ, the One who by the Cross forgave us.

롬 8:28 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만약 믿는다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씁쓸함이 없어지고, 자라날 원망도 없어지고, 절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누리는 은혜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사람을 돕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별문제 없으니 그냥 잊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우리에게 고백할 때, 좀 더 성경적인 말은,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요셉과 같이 마음에 어떤 악의도 남겨두고 있지 않음을 확신시켜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그래서 “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제 요셉으로 다시 돌아가, 요셉은 계속해서 은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21 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또한 이런 요셉과 같이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우리가 이런 상황 겪게 되는 날이 온다면, 하나님 능력의 주권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용서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 가운데 올 수 있는 또 다른 유혹 가운데 하나는, 내가 용서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보다 선함의 우월한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을...

Joseph's Exodus: Providential Grace Beyond Death (22-26)

v22, that '(So) Joseph remained in Egypt, he and his father's house. Joseph lived 110 years. And Joseph saw Ephraim's children of the third generation. The children also of Machir the son of Manasseh were counted as Joseph's own.'

The parallels b/w Jacob & Joseph continue — as Jacob had taken his grandsons, Ephraim & Manasseh as his own in Genesis 48 to become the half-tribes of Joseph...so also Joseph does the same with his great grandchildren through Manasseh — his firstborn to confirm covenant grace.

He also urges his brothers to agree to a similar oath as his father Jacob had pressed Joseph to swear — v24 (And) 'Joseph said to his brothers, "I am about to die, but God will visit you and bring you up out of this land to the land that he swore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Then Joseph made the sons of Israel swear, saying, "God will surely visit you, and you shall carry up my bones from here." So Joseph died, being 110 years old. They embalmed him, and he was put in a coffin in Egypt.'

Though Joseph's brothers with the exception of Benjamin were all older than him...Exodus 1:6 summarises their deaths coming after Joseph. True to Joseph's God-given gifting...he makes a prophecy of a coming exodus from Egypt...at the time God would visit them...God also spoke of that time to Joseph's great-grandfather Abram — Genesis 15 predicting the exodus after 400 years in Egypt.

Just like Joseph to Jacob — so Joseph's brothers to him — they gave him their oath that bound them & their descendants to take his remains to the PL when they left Egypt...As for Jacob's body....so also Joseph's....he was embalmed to preserve his remains until that time.

요셉의 출애굽: 죽음 너머 주권적 은혜 (22~26)

22~23 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 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계속해서 야곱과 요셉의 유사점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48 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듯이, 요셉 또한 므낫세를 통해 얻은 자신의 손자들을 자신의 슬하에서 양육합니다.

그는 또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하게 한 맹세와 같은 것을 그의 형제들 또한 하도록 촉구합니다. *24 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 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 그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출애굽기 1:6 절은 요셉 이후에 죽은 형제들 죽음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답게 그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을 예언합니다...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실 것이며...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람에게 창세기 15 장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한 맹세와 같이, 그의 형제들 또한 요셉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합니다...그리고 야곱과 같이, 요셉 또한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때가 될 때까지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 방부처리 된 것입니다.

Joshua 24:32 ‘As for the bones of Joseph, which the people of Israel brought up from Egypt, they buried them at Shechem, in the piece of land that Jacob bought from the sons of Hamor the father of Shechem for a hundred pieces of money. It became an inheritance of the descendants of Joseph.’

The Grace that Overcomes Evil & Death

So though the book of Genesis ends with the recounting of evil & Joseph’s death.... This isn’t the finish of this book of beginnings.....For there is forgiveness for evil & hope in death. Because.....God’s providence.....that comes by His sovereign grace reigns supreme

It was there with the Ishmaelite traders. It transformed Judah in repentance. It was present in Potiphar. It overruled his lustful & deceitful wife. It remained with Joseph in prison. It shone in the darkness of the pit....It visited Pharaoh. It saved many & caused Israel to flourish & now the Lord’s providential grace forgave guilt, restored relationships & brought hope in death

Evil & death aren’t the end of our stories either....though only b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eatest son of Israel by grace has purchased us...He has overcome evil, guilt & death. By faith we have already & surely will overcome!

여호와와 24:32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악과 죽음을 이기는 은혜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이 당한 악한 일과,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합니다...그러나 이는 끝이 아닙니다...왜냐하면 악에 대한 용서와 죽음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의 은혜로 다스리시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마엘 상인들과 함께했으며, 이 은혜는 유다를 회개 가운데 변화 시켰고, 보디 밭과,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함께 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어두운 삶 가운데 밝히 비쳤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와 함께했고, 많은 이들을 기근 가운데 구하였고, 이스라엘을 번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님의 주권적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며,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악과 죽음은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그가 악,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겼으며, 확실히 이길 것입니다!